

KIA, 도루 저지로 승률 높인다

지난주 KT·두산전 도루 저지 상대팀 흐름 끊고 승리 가져와 선수들 호흡 중요한 '팀플레이' '도루 저지를 높이기' 순항 중



상대의 발, 손이 아닌 발로 잡는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주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연달아 위닝시리즈를 거뒀다. 모처럼 경기 후반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났고, 흔들리던 불펜도 안정적인 모습으로 승리를 지켰다. 그리고 승리를 이끈 또 다른 순간들도 있었다.

KIA는 17일 KT와의 홈경기에서 3-3으로 맞선 7회초 선두타자 로하스를 3루수 송구 실책으로 내보냈다. 긴박한 승부에서 실책으로 선두타자를 내보낸 KIA는 도루 저지로 분위기를 끊었다.

로하스가 슬라이딩을 했고 손이 베이스에 먼저 닿는 것 같았지만, 2루 베이스가 아닌 1루 방향에서 몸을 날려 공을 잡은 박찬호가 그대로 로하스의 다리를 글러브로 찍으면서 아웃을 만들었다.

이 경기는 9회말 나온 나성범의 끝내기 안타로 KIA의 5-4 승리로 끝났다.

KIA 제임스 네일과 두산 잭 로고가 맞붙은 20일에는 0-0으로 맞선 5회말 중요한 아웃카운트가 나왔다.

네일이 조수행과 정수빈을 연속안타로 내보내면서 무사 1·2루의 위기를 맞았다. 케이브의 잘 맞은 타구가 박찬호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면서 원아웃, 이어 박찬호가 2루 베이스를 밟으면서 스타트를 끊었던 조수행까지 동시에 잡아냈다. 그리고 양의지의 타석에서 정수빈이 바로 도루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박찬호가 정수빈의 다리를 공략해 태그에 성공했다.

흐름이 넘어갈 수 있던 상황에서 실점 없이 이닝을 끝낸 KIA는 이날 6-2 승리를 거뒀다.

박찬호는 "포수들에게 부탁을 했다. '내 기준 왼쪽으로 멀리 던져주면 알아서 잡아서 태그하겠다. 거기만 던져주면 아웃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KIA 타이거즈 박찬호가 지난 20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0-0으로 맞선 5회말 정수빈의 도루를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시즌 '주자'로서의 실패 경험이 공부가 됐다.

박찬호는 "작년에 내가 그렇게 많이 당했다. 그래서 알았다. 손이 아니라 다리에 태그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그걸 느껴서 포수들에게 부탁을 했다. 올해 그렇게 해서 왼쪽 방향에서 아웃을 잡았다"며 "뒤에서 공만 잡으면 태그가 된다. 포수들이 잘한 것이다. 요구한 대로 잘 던져줬다"고 포수들의 공을 이야기했다.

포수 한승택은 "찬호가 항상 완전 왼쪽으로 쏠리게 던져주려고 이야기를 한다. 포수는 습관적으로 베이스 위를 보고 던진다.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데 찬호가 시험 때도 그렇고 빠른 주자 나가고 하면 계속 왼쪽으로 던지라고 신호를 보낸다. 인식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가 공도 거기로 간다"며 "(로하스 도루저지 때) 공이 많이 벗어났지만 찬호가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더 가서 잡아준 것도 있다. 생각해 보면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서 그런 쪽으로 플레이를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타케시 배터리 코치는 '도루 저지를 높이기'를 목표로 언급했다. KBO는 가장 많이 뛰는 리그인 만큼 도루에서 승패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게 타케시 코치의 설명이었다.

시즌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다. 시즌 첫 연속 위

닝 시리즈에도 도루 저지가 있었다.

도루 저지는 투수와 포수 그리고 공을 잡는 내야수 모두의 호흡이 중요한 '팀플레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포수 한승택은 "포수 혼자 해낼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니다. 포수는 투수가 킥 모션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최대한 빠르게 해서 정확한 송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도루는 양날의 검이다. 성공하면 득점 확률이 치솟지만, 실패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잘 막고, 잘 뛰어야 한다.

박찬호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포수들과 좋은 호흡으로 상대 주자를 막아야 하고, 주자로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득점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해야 한다.

한승택은 "상대의 빠른 선수 둘이 두 번씩 살아 나가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선수들이 나가면 피곤하다"며 "우리 팀에서는 (최)원준이, 찬호가 출루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다. 중간에 성범이 형, 선빈이 형, 형우 형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 아플 것이다. 포수 입장에서는 찬호가 가까이 있으니까 좋지만 다른 팀에 있었으면 싫었을 것 같다. 알뜰하게 플레이를 잘 한다. 그래서 좋은 선수다"고 언급했다.

/김여를 기자 wool@

광주FC 목표 상향 "아침 우승컵"

26일 사우디서 알 힐랄과 8강 리그·코리아컵 등 강행군에도 이정호 감독·선수들 사기충천 광주서는 새색 단체관람 응원전

광주FC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다.

광주는 오는 26일 오전 1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알 힐랄을 상대로 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전을 치른다.

'전통의 강호'를 적지에서 상대해야 하는 만큼 객관적으로는 광주의 열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광주에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는 맞대결이다.

광주는 구단을 넘어 리그의 역사에 발자국을 남겼다.

광주는 일본 비셀 고베를 상대로 0-2의 승부를 뒤집고 극적인 8강행을 이루면서, K리그 시도민구단 역사상 첫 AFC 주관 대회 8강 진출을 이뤘다. 창단 후 첫 아시아 무대 도전에서 이룬 성과라 더 놀라운 결과다.

광주는 리그 스테이지 첫 승부에서부터 요코하마를 7-3으로 대파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어 3연승 질주를 하면서 기세를 올린 광주는 16강전에서는 비셀 고베를 1-2차전 합계 3-2로 제압했다. 1차전 0-2패배 뒤 안방에서 3-0 승리를 거두면서 만든 기적같은 뒤집기였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 온 이정호 감독과 선수들에게 만족은 없다. 기존 '8강' 목표를 수정한 광주는 '우승컵'을 그리고 있다.

리그와 코리아컵까지 병행하는 강행군에도 광주의 분위기는 최상이다. 4월 치른 5경기에서 광주는 4승을 챙겼다. 고른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한 것도 반갑다. 헤이스가 연달아 득점에 성공



광주FC 헤이스(왼쪽), 아사니 등 선수들이 22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회복 및 현지 적응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하면서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적생' 박인혁, '무키' 강희수, 부상에서 돌아온 가브리엘도 마수결이포를 터트렸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알 힐랄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알 힐랄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페셔널 리그에서 19개의 우승컵을 차지한 최다 우승팀이다. ACLE의 전신인 ACL에서도 4차례 정상에 오른 최다 우승팀이다.

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전방에 알렉산드르 미트로비치, 중원에 후벵 네베스-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후방에 칼리두 콜리발리, 아신 부누 등 유럽 무대를 호령했던 선수들로 스쿼드가 짜여졌다.

하지만 광주는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보여준 팀이다. 객관적인 전력과 평가 등을 뒤집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온 광주에는 '원팀'이라는 특급 무기가 있다. 특유의 조직력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도 광주의 색깔을 보여주고, 전술을 구현

해 왔다. 이정호 감독은 "알 힐랄을 분석했다. 우리가 조직력 면에선 앞선다고 본다"며 "축구는 팀으로 하는 단체 스포츠다. 우리 선수단의 가능성을 믿는다. 꼭 우승하고 싶고 그래야 한다. 늘 그렇듯 우리가 하던 축구를 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광주의 우승 도전을 위해 12번째 선수들이 함께 된다.

광주는 알 힐랄과의 경기가 열리는 26일 광주 e스포츠경기장(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단체관람 응원을 펼친다.

영화관 단체응원을 추진했던 광주는 응원에 함께 하고 싶다는 시민과 팬들의 규모가 500여 명이 넘어서다 광주e스포츠경기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K리그 유일의 생존팀으로 '한국 대표'로 나서는 광주가 팀워크와 팬들의 열정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지 주목된다.

/김여를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 '6호 도움'...PSG 무패 우승 도전

낭트와 1-1 비겨 '24승 6무'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선 이강인(사진)이 시즌 6호 도움으로 두 달 만에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파리 생제르맹(PSG)의 무패 우승 도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PSG는 23일 프랑스 낭트의 스타드 드 라 보주 아르에서 열린 낭트와의 2024-2025 프랑스 프로 축구 리그1 29라운드 순연 경기에서 전반 33분 이강인의 도움으로 비티냐가 선제골을 터트렸으나 후반 38분 도글라스 아우구스투에게 동점 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지난 6일 28라운드에서 조기 우승을 확정된 PSG는 이날은 비록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으나 개막 30경기 연속 무패(24승 6무-승점 78)를 이어갔다.

PSG는 남은 4경기에서 리그 사상 최초의 무패 우승을 노린다.

이강인은 이날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해 비티냐의 선제골을 도왔다.

0-0으로 맞선 전반 33분 페넬타이크 오른쪽에서 우스만 탐벨레가 내준 패스를 이강인이 페널티지역 안 정면에서 이어받을 때 공이 살짝 튀어 올랐지만 어려운 자세에서도 옆으로 연결했고, 비티냐가 쇄도하며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2월 24일 올랭피크 리옹과의 23라운드 원정 경기(3-2 승) 도움 이후 이강인이 두 달 만에 기록한 공격포인트이자 시즌 6호 도움이다. 이강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만 6골 6도움을 기록했다.

PSG는 후반 중반 이후 수비가 느슨해지더니 결국 아우구스투에게 동점 골을 얻어맞고 승점 1씩을 나눠 갖게 됐다.

/연합뉴스

"매킬로이 보러 27만8000명 올 것"

7월 고국 북아일랜드서 '디오픈'

올해 남자 골프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선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고국에서 열리는 디오픈 골프 대회가 역대급 관심을 기대하고 있다.

디오픈을 주관하는 R&A는 오는 7월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리는 제153회 디오픈에 27만8000명의 관중이 경기를 보러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대회를 앞두고 사흘 동안 열리는 연습 라운드 때 8만9000명을 포함한 것이다.

27만8000명이 실제로 들어오면 디오픈 사상 두

번째로 많은 관중 동원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중이 입장한 디오픈은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치러진 2022년 대회였다.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긴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해 눈물의 투혼을 보였던 2022년 디오픈에는 관객 29만 명이 모였다.

로열 포트러시에는 지난 2019년에도 디오픈이 열렸는데 당시에는 23만여명이 입장했다.

매킬로이의 '절친' 세인 라우리(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인기가 높은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를 제치고 우승했던 대회다.

/연합뉴스